

2020 EBS 수능특강 고전시가

수능특강 p. 69

작품 분석

박인로, 「선상탄(船上嘆)」

늘고 병(病)든 몸을 주사(舟師)로 보너지실시

(화자 자신) (수군을 통괄하는 관리)

을사(乙巳) 삼하(三夏)에 진동영(鎭東營) 내려오니

(선조 38년 여름) (부산)

관방중지(關防重地)에 병(病)이 깃다 안자실라

(변방의 중요한 땅) (화자의 책임감을 보여 줌)

일장검(一長劍) 비기 타고 병선(兵船)에 구태 올라

(비스듬히)

여기 진목(勵氣瞋目)하야 대마도(對馬島)을 구어보니

(왜적에 대한 적개심이 담긴 행동)

[바람 조친 황운(黃雲)은 원근(遠近)에 사혀 있고

아득한 창파(滄波)는 긴 하늘과 흰 빗칠쇠]

([] : '황운'과 '창파'를 통해 색채 이미지가 드러남)

→ 서사: 병선에 올라 바라보는 바다의 적막함

선상(船上)에 배회(徘徊)하며 고금(古今)을 사역(思憶)하고

(생각하고)

어리 미친 회포(懷抱)에 헌원씨(軒轅氏)를 애드노라

(화자의 원망의 대상 ①) (원망하노라)

[대양(大洋)이 망망(茫茫)하야 천지(天地)에 둘러시니

진실로 비 아니면 풍파 만 리(風波萬里) 밧기 어너 사이(四夷) 앓볼넌고

(사방의 오랑개)

무슴 일 흐려 하야 비 못기를 비롯흔고

(만들기)

만세천추(萬世千秋)에 ㄴ업슨 큰 폐(弊) 되야

(오랜 세월) (헌원씨가 배를 만들어 왜적이 바다를 건너 쳐들어오게 된 것이므로 큰 폐를 끼친 것이라고 함)

보천지하(普天之下)에 만민원(萬民怨) 길우는다

(온 세상에) (조장하는구나)

([] : 화자가 현원씨를 원망하는 이유)

→ 본사 1: 배를 처음 만들었다는 현원씨를 원망함

어즈버 썩드라니 진시황(秦始皇)의 타시로다

(화자의 원망의 대상 ②)

빅 비록 있다 허나 왜(倭)를 아니 삼기던들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일본으로 보낸 신하들의 자손이 왜적이 됨 → 진시황 때문에 왜가 생겨났으므로 진시황을 원망함)

일본(日本) 대마도(對馬島)로 빈 빅 절로 나올년가

뉘 말을 미더 듯고 동남동녀(童男童女)를 그덕도록 드러다가

(총각과 처녀) (그토록)

해중(海中) 모든 섬에 난당적(難當賊)을 기쳐 두고

(감당하기 어려운 도적, 왜적을 가리킴 (남겨))

통분(痛憤)헌 수욕(羞辱)이 화하(華夏)에 다 밋나다

(수치와 모욕) (중국) (미친다)

장생(長生) 불사약(不死藥)을 얼미나 어더 너여

만리장성(萬里長城) 놓히 사고 몇 만 년(萬年)을 사도션고

(살았던가)

(남과 같이)

넙딕로 죽어 가니 유익(有益)헌 줄 모르로다

(불사약을 찾아 각지에 사람을 보낸 것이 부질없이 되었음)

어즈버 생각허니 서불(徐市) 등(等)이 이심(已甚)허다

(진시황의 명령으로 불사약을 찾아 떠난 사람, 그의 자손들이 왜적이 됨)

(서불)

인신(人臣)이 되야서 망명(亡命)도 허는 것가

(신하로서 망명한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것임)

신선(神仙)을 못 보거든 수이나 도라오면

(빨리나)

주사(舟師) 이 시렵은 전혀 업게 삼길렀다

(화자 자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 본사 2: 왜적이 생겨나도록 한 진시황을 원망함

두어라 기왕불구(既往不咎)라 일너 무엇 흐로소니

속절업슨 시비(是非)를 후리쳐 더더 두자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일)

잠사 각오(潛思覺悟)흐니 내 뜻도 고집(固執)고야

(깊이 생각하고 깨달으니)

황제(黃帝) **작주거(作舟車)**는 **원** 줄도 모르로다

(배와 수레를 만든 것) (그릇된)

장한(張翰) 강동거(江東去)에 추풍(秋風)을 만나신들

(장한은 전국 시대 때 사람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오자 고향의 음식이 먹고 싶어 버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함)

편주(扁舟) 곳 아니 타면 천청 해활(天淸海濶)흐다

(작은 배)

어니 흥(興)이 절로 나며 **삼공(三公)**도 아니 **박골**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을 가리킴) (바골)

제일 강산(第一江山)에 부평(浮萍) 곳흔 어부 생애(漁夫生涯)을

일엽주(一葉舟) 아니면 어딴 부쳐 든 힐논고

(풍류를 즐기는 데 배가 중요한 역할을 함)

→ 본사 3: 풍류와 흥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배를 떠올림

일언 닐 보진딘 빅 삼긴 제도(制度)야

(배가 풍류를 즐기는 데 쓰이는 일)

지묘(至妙)흐 덧흐다마는 엇디흐 우리 물은

(지극히 묘한)

느는 **덧흔 판옥선(板屋船)**을 주야(晝夜)의 빗기 타고

(풍류를 즐기는 배와 대조적으로, 전쟁 상황을 나타냄)

임풍 영월(臨風咏月)호디 흥(興)이 전혀 업는 게오

(바람과 달을 느끼며 시를 짓고 읊)

[석일(昔日) 주중(舟中)에는 **배반(杯盤)이 낭자(狼藉)터니**

(술상이 어지럽게 흩어졌더니)

금일(今日) 주중(舟中)에는 **대검 장창(大劍長槍)뿐이로다]**

(무기 - 전쟁을 의미함)

([] : 과거 풍류를 즐기는 생활과 현재 전운이 감도는 상황을 대조적으로 제시함)

흔가지 빈언마는 가진 빈 다라니 / 기간(其間) 우락(憂樂)이 서로 갖지 못하도다
(근심과 즐거움)

→ 본사 4: 관옥선을 타고 있는 상황을 안타까워함

시시(時時)로 멀이 드러 북신(北辰)을 바라보며
(북극성, 임금이 계신 곳을 의미함)

상시(傷時) 노루(老淚)를 천일방(天一方)의 디이느다
(근심하는 늙은이의 눈물)

오동방(吾東方) 문물(文物)이 한당송(漢唐宋)에 디라마는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냄)

국운(國運)이 불행(不幸)하야 해추 흉모(海醜兇謀)에 만고수(萬古羞)을 안고 이셔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

백분(百分)에 흔 가지도 못 시셔 버려거든 / 이 몸이 무상(無狀)호들 신자(臣子)이 되야 이셔다가
(변변치 못한 들)

궁달(窮達)이 길이 달라 몬 피읍고 늘거신들
(곤궁과 영달의 길 - 임금과 신하의 길)

우국 단심(憂國丹心)이야 어니 각(刻)에 이즐년고
(우리나라에 대해 걱정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을 드러냄)

→ 본사 5: 왜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

강개(慷慨) 계운 장기(壯氣)는 노당익장(老當益壯) 하다마는
(이기지 못하는) (노익장, 늙었지만 의욕이나 기력은 점점 좋아짐)

도고마는 이 몸이 병중(病中)에 드러시니 / 설분신원(雪憤伸冤)이 어려울 듯 하건마는
(조그만한) (기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 버리고 창피스러운 일을 씻어 버림)

[그러나 사제갈(死諸葛)도 생중달(生仲達)을 멀리 좃고
(죽은 제갈공명이 산 사마중달을 멀리 쫓아냈다고 함)]

발 업슨 손빈(孫臏)도 방연(龐涓)을 잡아거든]
(손빈의 친구인 방연이 손빈의 다리를 잘랐으나 손빈에게 죽임을 당함)
([] :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승리를 거둔 인물의 중국 고사를 인용함)

흔들며 이 몸은 수족(手足)이 ㄴ자 잇고 명맥(命脈)이 이어시니
(화자는 자신이 제갈공명이나 손빈보다 나은 상황임을 말함)

서절구투(鼠竊狗偷)을 저그나 저홀소냐
(왜적을 비하하는 표현) (두려워할소냐)

비선(飛船)에 둘러드러 선봉(先鋒)을 거치면

구시월(九十月) 상풍(霜風)에 낙엽(落葉)가치 헤치리라

(비유적 표현을 통해 적을 물리치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냄)

칠종칠금(七縱七擒)을 우린들 못 흘 것가

(제갈공명이 맹획을 일곱 번 잡았다 일곱 번 놓아준 일을 말하는 것으로, 마음대로 잡았다 놓아주었다 함을 가리킴)

→ 분사 6: 왜적을 무찌르고 실분신원할 것을 다짐함

준피 도이(蠢彼島夷)*들이 수이 결항(乞降)하야스라

(항복하여 용서를 빕)

항자 불살(降者不殺)이니 너를 구터 섬멸(殲滅)하라

(항복하면 죽이지 않겠다고 하며 항복을 권유하는 마음을 드러냄)

오왕(吾王) 성덕(聖德)이 육병생(欲竝生)하시니라

(함께 살고자 함)

태평천하(太平天下)에 요순 군민(堯舜君民) 되야 이서

(태평한 시대의 백성)

일월 광화(日月光華)는 조부조(朝復朝)하얏거든

(해와 달의 빛, 임금의 덕을 가리킴) (태평성대가 지속됨)

[전선(戰船) 트던 우리 몸도 어주(漁舟)에 창만(唱晩)하고

(늦도록 노래함)

추월 춘풍(秋月春風)에 높히 베고 누어 이서

성대(聖代) 해불양파(海不揚波)*를 다시 보려 하노라]

([] : 태평성대에 대한 소망)

→ 결사 : 태평성대를 영원함

★ 주제 : 우국충정과 태평성대를 영원하는 마음

작품 정리

박인로, [선상탄]

〈해제〉

이 작품은 전쟁 가사의 대표적 작품으로, 임진왜란이 끝난 후 부산에 통주사로 부임한 작가의 상황과 심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왜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 우국충정의 마음을 드러내고, 설분 신원할 것을 다짐하며 기개와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특히 판옥선을 탄 현재의 상황과 연관 지어 현 원씨와 진시황에 대한 원망스러움을 표출하고, 풍류를 즐기던 배를 떠올리며 태평성대를 염원하는 등 전란에 대한 관념과 감정을 다양하게 담아내고 있다.

〈주제〉

우국충정과 태평성대를 염원하는 마음

〈구성〉

- 서사: 병선에 올라 바라보는 바다의 적막함
- 본사 1: 배를 처음 만들었다는 현원씨를 원망함.
- 본사 2: 왜적이 생겨나도록 한 진시황을 원망함.
- 본사 3: 풍류와 흥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배를 떠올림.
- 본사 4: 판옥선을 타고 있는 상황을 안타까워함.
- 본사 5: 왜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
- 본사 6: 왜적을 무찌르고 설분신원할 것을 다짐함.
- 결사: 태평성대를 염원함.

〈표현상의 특징〉

-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배경이 되는 공간의 분위기를 전달함
- 유사한 구절을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함
- 의문형의 문장을 활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부각함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드러냄
- 다양한 고사를 인용하여 화자의 심정과 의지를 드러냄